세계 명상과학 석학들 동국대서 모인다

동국대, 6월 17~19일 중강당서 국제명상엑스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명상과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내 중강당에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명상의 가치를 조명하고 명상의 대중화 및 세계화 선도를 목적으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의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해 진행되는 컨퍼런스다. 특히 올해 엑스포의 컨퍼런스는 동국대와 하버드 의대 IMP(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와의 공동주최로 강연의 수준과 깊이를 더했다.

또한 외국 석학과 온라인 실시간 명상 강연의 진행으로 쌍방향의 실습과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할만 하다.

1일차 6월 17일의 강연은 '명상과 치유'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하버드 의과대학 마음챙김 및 연민센터 소장인 제브 슈만 올리비에 교수가 '웰빙과 주요돌봄을 위한 마음챙김 훈련'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이어 내면가족체계(IFS) 프로그램을 개발한 리처드 슈워츠 교수가 '트라우마 치료'를 주제로 강연과 실습을 진행한다.

이어서 티모시 해리슨 에모리대학 CBCT 부국장이 명상과학과 신경과학 관점에서의 '인지기반 연민 프로그램'의 강연과 MSC 프로그램 공동개발자인 크리스토퍼 K. 거머의 'MSC의 심리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타니아 싱어의 '사회적 인지와 정서 기저의 신경체계에 미치는 명상효과'를 주제로 강연도 예정돼 있다.

동국대는 "IFS(Internal Family Systems)와 MSC(Mindful Self-Compassion), CBCT(Cognitively-Based Compassion Training) 등 세계적인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트라우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일차 18일에는 '명상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나 카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의 '심박변이도와 마음챙김' 강연과 사라 W. 라자르 교수의 '명상과 신경과학'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김종우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박문호 뇌과학전문가, 이강욱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신경과학, 한의학, 물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명상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하버드 의대 IMP와 공동 주최
심리치료 등 활용도 논의 예정

19일에는 '명상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중독에 대한 마음챙김 훈련의 국제적 전문가인 져드슨 브루어 브라운 의과대학 교수의 '명상과 심리치료' 강연이 진행되며, 은산스님과 이유섭 동국대 영상대학원 외래교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명상교육 및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 체험학습은 서광 스님의 육도윤회를 현대적으로 명상화한 'RHS명상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명상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채정호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는 '명상의 미래: 일상, 가상 및 임상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 가능한 명상의 미래를 제시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서광 스님과 최현민 수녀(종교대화 씨튼연구원장), 박용한 대한명상의학회장은 '4차 산업시대 한국 명상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지원되며, 유튜브나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최대 3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컨퍼런스 홈페이지(mind.dongguk.edu/sub01/conference.php)에서는 컨퍼런스 관련 사전참가와 사전질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참가 등록을 하면 강연자들의 발표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참가 등록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관심 있는 강연의 강연자에게 직접 질문을 남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사전신청 및 사전질문 참여자를 위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

울진 보광사 전소…긴급 모연 시작

5월28일 대웅전 · 종각 피해


산불로 전소된 울진 보광사 모습.

5월 28일 경북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당국이 진화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즉시 현장에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 산불 화재피해 파악과 주변 사찰 피해 확인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28일 발생한 산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등 축구장 203개에 해당하는 산림 145ha가 전소됐다는 사실을 현장 선발조사단 파견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발조사단에 따르면 산불은 5월 28일 낮 12시 6분 경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 27의 6 일원에서 낙석방지 철망공사 용접 불티로 시작됐으며 23시간 34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확인 결과, 보광사 대웅전 1개소와 종각 등, 그 외 상가 4개소가 전소됐다.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44명은 한밤중 울진군민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했다. 천연기념물 제96호인 수산리 굴참나무(수령 300년)와 제409호인 행복리 처진소나무(350년)는 화마를 피해갔다.

보인 스님은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난 뒤 2달여 만에 일어난 산불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울진 추가 산불 발생 긴급 모금 후원을 통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9일간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축구장 2만 180개에 달하는 산림 1만 4000헥타르가 불타고 320여 가구, 4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편 조계종긴급구호단은 1996년 경기도 연천 · 문산 집중호우 피해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외 재난 · 재해 사태 발생 시 현장을 아우르며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울진 산불 사찰피해 관련 해피빈 긴급 모금 등을 통해 복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임은호 기자

"문수 스님 자비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중승대 총동문회, 5월 31일 12주기 추모 다례재

"자신의 생명을 보시해 만 생명을 구제하고자 한 문수 스님의 행동은 수행자로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용맹정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수 스님의 간절한 발원인 만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며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한 이번 다례재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과 중앙승가대 동문 · 도반 스님들,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과 총동문회 17기 회장 성화 스님의 행장소개,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의 추모사, 헌다 및 헌화, 종사영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못생명위해 자신 내던진 원력
조화로운 세상으로 이어갈 것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5월 31일 서울 개운사에서 문수 스님 1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성화 스님은 행장소개를 통해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죽어가는 강과 강에 깃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보살의 원력으로 부처님 전에 바친 것"이라면서 "문수 스님은 손을 부처님 모습처럼 올리고 자세를 가지런하게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전해져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인사말을 대신해 오른 자리에서 개운사에서 4년간 문수 스님과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태원 스님은 "문수 스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오른 것에 뜻을 굽히지 않은 스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날 다례재 참석자들은 천도의식인 종사영반이 진행되는 동안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의 유지를 되새겼다.

문수 스님은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통도사, 두방사, 해인사, 묘관음선원 등에서 정진하며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좌의 길을 걸었다. 2006~2007년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역임한 이후 군위 지보사에서 일종식하며 수행에만 매진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위천 제방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 ·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관 · 우관스님, '사찰음식 명장' 지정

원행 스님 6월 2일 위촉장 수여
사찰음식 전승, 대중화 인정받아



왼쪽부터 우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정관 스님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써 온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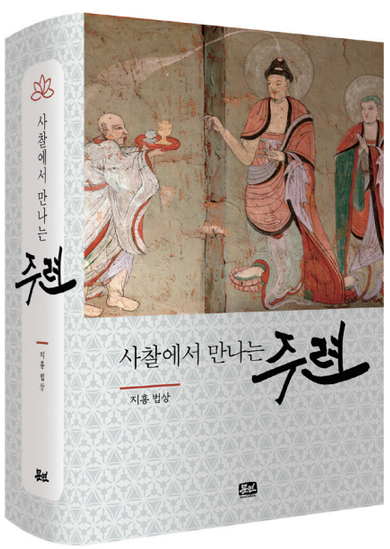
조계종은 사찰음식 전승과 보존 및 대중화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스님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명장을 지정하고 있다. 명장 지정은 2016년 선재 스님, 2017년 계호 스님, 2019년 적문 스님 · 대안 스님에 이어 네 번째다. 사찰음식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이기도 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사업단과 함께 한국의 사찰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두 스님을 이제서야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하게 됐다.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명장 위촉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장으로 지정된 두 스님은 공히 사찰음식 대중화에 힘써왔다. 정관 스님은 현재 전남 백양사 천진암 암주이자 금발우 선음식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유명 TV프로그램인 '아벡에릭'에 출연했으며, 2016년 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렸다.

우관 스님은 현재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 원장이며 2017~2019년까지 사찰음식 관련 영문 저서인 〈Wookwan's Korean Temple Food〉를 발간했고, 이 책으로 미국 독립출판협회(IBPA) 벤자민 프랭클린 어워드 은상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아름답고 심오한 통찰이 번득이는 주련의 세계



주련(柱聯)은 영련(楹聯)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柱)와 영(楹)은 기둥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聯)은 '연이어'라는 표현으로 판자에 글을 써서 새김을 하여 걸어 놓은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련은 훈계나 격려 또는 경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련의 바탕이 되는 판자의 아래로는 연잎이나 연꽃, 당초(唐草) 문양 등을 새겨 장식하여 주련의 문장이 경직된 문구라면 이를 좀 더 완화하고, 흥부(興賦)하는 문구라면 더욱더 이를 북돋우기도 한다.

주련도 엄연히 삼보에 대비하여 본다면 법보에 해당한다. 주련의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삼보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련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기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
지홍 법상 | 1,056쪽 | 55,000원

590수의 게송,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노래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일러주는 것이며, 이를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한다. 또한 불교 재(齋)의례의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법회이다. 하여 법문을 들려주어 무명을 타파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모르면 시식(施食)이 음식을 베풀어 영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시식(施食)의 본질은 법식(法食)이다. 영가에게 법식을 베풀기 위해서는 재(齋)를 주재(主宰)하는 이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만 전해줄 수 있다. 뜻을 모르고 하는 염불은 염불(念佛)이 아닌 구불(口佛)이라 하여 예부터 경책하였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불교 재齋의례 게송
지홍 법상 | 1,392쪽 | 50,000원

문학 Literary Solidarity 주식회사 문학연대는 사람의 삶에 서정을 입히고, 장르를 넘어서는 문학의 세계를 꿈꾸는 출판 기업입니다.